

대행 스님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관할 때 마음은 어디다 두나요

질문 '주인공!' 하고 관할 때 입으로는 '주인공' 하는데 마음은 어디다 두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인간이 태어났으면 본래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염주가 되려면 줄에다 알을 꿰어야 염주가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염주와 같이 그렇게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 게 없이, 육신과 정신계가 본래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이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 누가 믿어라, 안 믿어라 할 게 없이 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럼으로써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같이 겸해서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줄이다 알이다 이런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유를 할 때에 싹은 뿌리에 붙어 있고 뿌리는 바로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바로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뿌리가!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까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거니까 내가 "이걸 믿으시오!"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염주는 이 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그렇게 이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줄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물질계 테두리 안에서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신계로 무(無)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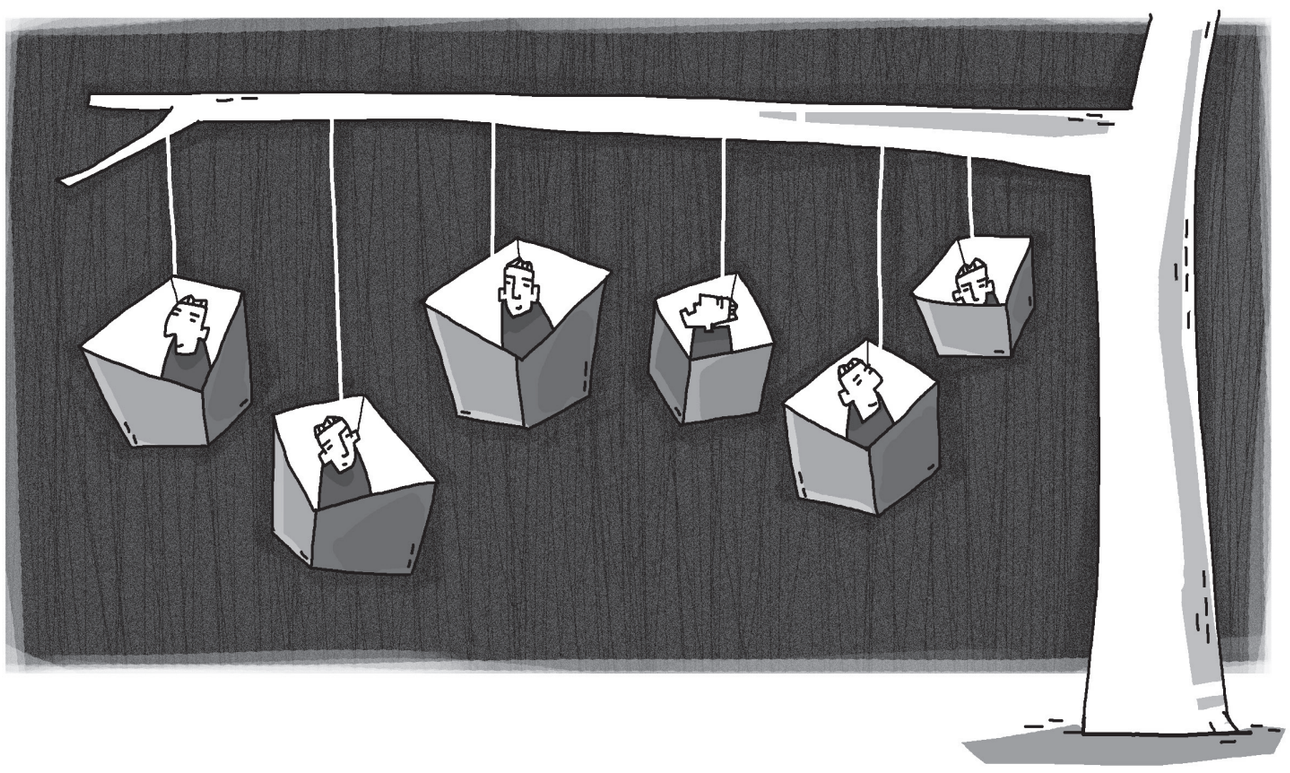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이걸 내가 믿으란다고 믿지도 말고, 믿지 말란다고 안 믿지도 말고, 또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돌아가는 인간 생활 자체와 진리가 바로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믿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듯이,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염주알이 저절로 이 줄에다 꿰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꿰어졌기 때문에 염주알은 걱정도 안 해요. 줄 끊어질까 봐 걱정도 안 하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놨다가도 못 믿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시일이 안 가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천차만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도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렇게 못 믿을 것이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게 불찰이 아닙니까, 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아,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네? 부부한테도 할 말 못 할 말 가려서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거는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 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 때 마음의 선장은, 잘못 내걸랑은 다스려서 거기 놓고, 잘 내걸랑은 '잘 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내 주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거기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주고 안 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부처 될 수 있는 능력이 99%가 됩니다. 이건 한 찰나 생각만 잘한다면…, 어렵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반드시 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고 거기 놓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아시고,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아시고 그 자리에다 되놓으신다면, 앞서 게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보람 있는 새 삶이 나온다 이 소립니다.

탐진치 삼독심 제거하려면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제거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진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그거 걱정 없어요. 삼세, 삼심, 삼독 이런 것이 과거, 미래로 인해서 현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순간과 나올 수 있는 순간의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래가 오늘이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되면 바로 삼세가 되고 삼심이 되니까 삼심이 그 무명을 벗지 못하고 인과를 벗지 못하면 바로 삼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독은 바로 현실의 일심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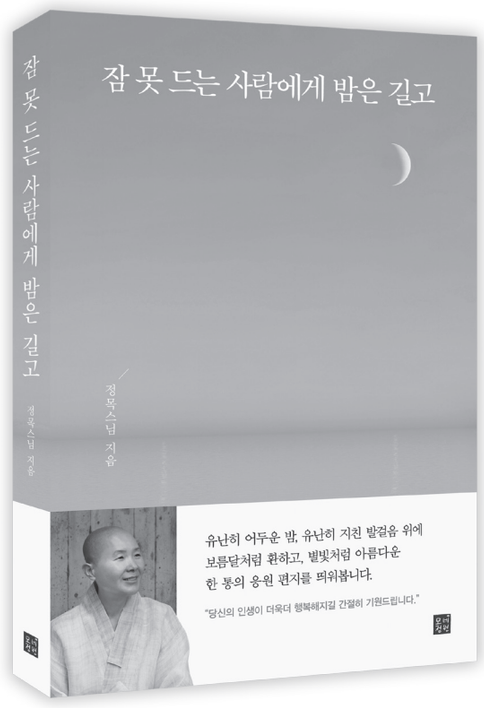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모네의 정원 TEL. 02-2004-8253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